

[미국-뉴욕]캐나다 식료품시장 치열한 전쟁중



지금 캐나다의 대형 식료품 판매 업체들은 2014년 여름의 후반부와 가을의 전반부를 통해 어떻게 그들이 매출 신장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주, 로블러 (Loblaws) 와 월마트 캐나다 (Walmart Canada, 이하 월마트) 모두는 그들의 영업 운영에 손질을 하여 올해 초 할인 판매를 한 바, 그다지 높지 않지만 완만한 상승의 매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 선두는 캐나다에서 세번째로 가장 큰 식료품 회사인 **메트로 (Metro)** 와 같은 동종의 식료품들을 판매 하고 있는 **타겟 (Target)** 이다.

월마트의 식료품 매출액은 상승, 하지만 거래량은 하락

올 해, 모든 대형 식료품 유통 회사들, 특히 **월마트(Walmart)**는 그들이 구매자들의 장바구니 예산의 커다란 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구매자들의 기호에 맞게 운영 함으로써 다른 경쟁사들과의 판매 경쟁 다툼으로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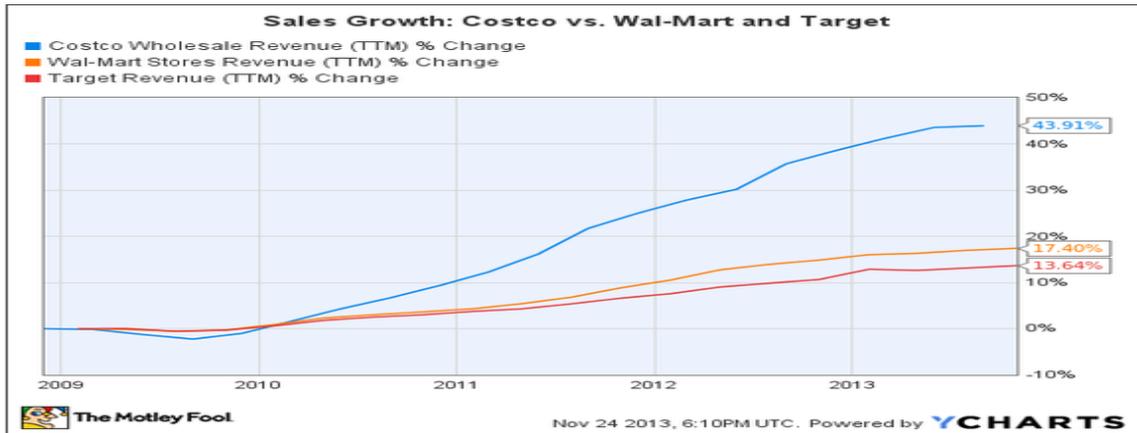


디스카운트 자이언트 (Discount Giant) 는 음식 을 판매 하기 위해 그들의 점포를 우리 나라로 치면 이마트와 같은 슈퍼센터즈(Supercentres) 로 확장 하는 데에 거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노력 은 언론 매체에 그 이름을 훨씬 더 나타 내지 않는 작은 경쟁자인 코스코가 성장의 한 자리를 차지 한 것과 같은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에 기반을 둔 창고 유통 업체인 코스코 (Costco)는 대대적인 광고 없이도 캐나다에 88 개의 매장을 두고 식료품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 하고 있고, 그 속도는 식료품 분야에서 월마트나 기존의 캐나다 식품 판매 업체들을 능가 한다고 한다.

“월마트가 슈퍼센터로 출범 이후 캐나다 전체의 식품 시장 매출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 차지했지만 코스코가 얻은 시장 점유율은 더욱 현저 했다” 라고 금융 회사의 분석가인 레이몬드 제임스(Raymond James)가 최근 조사 결과에서 발표했다. 레이몬드 제임스 에 의하면 식료품 구매 부분에서 코스코의 캐나다 시장 점유율과 상품 판매량은 전체 캐나다 소비자들의 구매의 53%를 차지 했다고

한다. 반면에 **월마트**는 2013 년의 시장 점유율이 35%에서 그쳤다. ²



한편, 캐나다 식품 매출 시장의 선두 주자인 **로블로**는 2008 년에 비해 2013 년의 매출이 5% 가량 하락했다. (아래 도표 참조)



다른 경쟁사인 **월마트**는 지난 해에 10%가 넘는 매출 상승을 보였다. 월마트와 유사 하게, **코스코**는 캐나다 안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2013 년 5 월, **코스코**는 캐나다 내에 25 개 정도의 매장을 추가로 더 개설 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³

company	Ontario	Quebec	BC	Atlantic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Loblaw Co	459	232	84	121	84	35	28
Empire Co	340	407	107	354	234	31	65
Metro Inc	264	381	0	0	0	0	0
Walmart Supercenter	105	16	25	-	40	8	10
Overwaitea	0	0	101	0	26	0	0
Costco	27	19	14	6	14	2	3

www.northamericaninterests.ca affiliated with grocerynews.org

전문가들은, 코스코의 성장 속도가 이렇게 계속 된다면 캐나다에서 대형의 전통적인 식료품 업체 순위로 4 번째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대량 상품이 날개 돋힌 듯 팔린다

코스코는 회원제 시스템과 소품목 대량 판매에 초점을 두며 의존한다. 예를 들어, 적은 품목의 야채를 팔지만, 소비자는 한 품목을 필요한 양 2 개 대신 12 개짜리한 묶음으로 산다.

이러한 묶음 판매는 코스코가 대량구입에서 생긴 절약된 금액을 회원들에게 돌려 줄 수 있게 한다. 분석가는 이 방식을 “대량 상품이 날개 돋힌 듯 팔린다”라고 표현했다.



워싱턴 기반의 **코스코**는 지난 해에 캐나다의 약 **일천만 회원(10 million members)**이 식료품비로 89 억달러 (한화 약 9 조 8500 억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반면 **월마트**는 45 억달러 (한화 약 5 조원) 였다고 한다.

우리는 **코스코**의 성장, 견인력, 그리고 영향력은 무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라고 소매업 분석가 **레이몬드 제임스와 켄릭 테이그(Kenric Tyghe)**가 말했다.

기사 자료 출처: http://globalnews.ca/news/1678970/heres-whos-really-winning-canadas-grocery-wars/?utm_source=Homegnca-national

²자료 출처: <http://www.fool.com/investing/general/2013/11/30/why-costco-will-continue-outgrowing-wal-mart-and-t.aspx>

³자료 출처: <http://www.northamericaninterests.ca/loblaws-sobeys.php>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